

유기농 GMO OMG

감독 제레미 세이퍼트 | 미국 | 2013 | 92분 | 다큐멘터리

10:30



우리 삶의 일부본이 되어버린 유전자조작식품.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식량시스템에 위협을 가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덤덤할 뿐이다. 인류사에서 가장 중대한 식량수급시스템의 변화와 직면하고 있는데도 복미권 사람들은 그저 담담히 GMO를 수용한다. 하지만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티 소작농부들은 GMO 씨앗을 모아 불태워버리고 있는 현실. 그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다른 국가에 비해 유난히 GMO에 무감한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생태계 마지막 물개 사냥꾼

감독 트루다 바르게 오테슨, 기리 엘리사벳 모테슨 | 노르웨이 | 2016 | 98분 | 다큐멘터리

13:30



바다, 빙하 그리고 매서운 추위가 지배하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세상. 북극곰과 급작스런 폭풍의 왕국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료. 지금까지 물개 사냥은 나이 많고 고집 센 선장 비요른과 그의 일등 항해사 에스핀의 연례 행사였다. 20세기 초반에는 200척이 넘는 노르웨이 물개 포획선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단 한 척 만이 남아 있다. 강력한 국제적 비난과 EU의 물개 관련 제품의 금수조치에 따라 이 산업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선장과 항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땅과 풋내기로 이루어진 이 엉성한 팀은 극지방 빙하를 향한 위험한 여행을 시작한다. 이들은 노르웨이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개 사냥꾼이다.

탈핵 판도라

감독 박정우 | 한국 | 2016 | 136분 | 극영화

16:00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자력 폭발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초유의 재난 앞에 한반도는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믿고 있던 컨트를 타워마저 사정없이 흔들린다. 방사능 유출의 공포는 점차 극에 달하고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 2차 폭발의 위험을 막기위해 발전소 직원인 '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목숨 건 사투를 시작하는데...!

환경일반 단편1

감독 황윤 외 4명 | 72분

10:30



-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빵집주인 다니엘 (감독 부누아 카세그랑, 엘렌 르게 | 프랑스 | 다큐멘터리) 3살에 빵을 만들기 시작한 다니엘은 그의 나이 스물 넷, 바게트 수용소에 싫증이 난다. 그러나 그는 단시 돌아 왔고, 일주일에도 단 이틀만 일하게 되었다!
- 산 할아버지의 하루 (감독 마리스 브링크마니스 | 라트비아 | 애니메이션) 산책하던 산 할아버지는 숲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한다. 그의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쥐는 분노한다. 어느 날, 산 할아버지는 숲을 오염시키는 한 시민을 보게 되는데...
- 광장의 닭 (감독 황윤 | 한국 | 다큐멘터리) 광장에 닭의 이미지가 넘쳐난다. 박근혜 퇴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3300만 마리의 닭, 우리가 단 2개월 만에 매장된다.
- 이상한 나라의 죽을 (감독 김민지 | 한국 | 다큐멘터리) 가슴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의 지난 5년의 시간을 따라가, 이들의 절규와 고통에 귀 기울인다.

해양오염 성난 서퍼들

감독 잉카 라이케르트 | 독일, 스페인 | 2016 | 85분 | 다큐멘터리

13:00



쓰레기, 폐수, 공산품과 산업화학물질 - 이 바다로 모인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염되고 있는 바다를 날이 갈수록 몸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퍼들이다. 파도가 조금이라도 일면 서퍼들은 겨울이건 여름이건 서핑보드를 집어 들고 파도를 탄다. 그들에게 있어 바다는 삶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다를 지키고 싶어한다. 자연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그들이 물 오염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조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서퍼들은 정치인이나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바다와 강에서 과학 연구를 펼치기도 한다. 필요하다면 법정에 서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새하얀 파도를 타고 싶다. 서퍼들로 이루어진 White Waves 팀은 2년에 걸쳐 유럽해안을 돌며 다른 서퍼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양오염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게 된다. 바다 속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바퀴부터 병원성 박테리아까지.

환경운동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감독 제리 로스웰 | 영국, 네덜란드 | 2015 | 109분 | 다큐멘터리

16:00



1917년,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핵실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시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그린피스를 탄생시키고 그로부터 현대 환경운동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미디어를 영리하게 이용했던 이 선구자들은 운동가로서의 모험들을 힘겹게 16mm 필름에 담아냈다. 젊은이들이 한창 자라나고 있는 조직의 복잡성과 맞닥뜨렸을 때, 이상과 현실이 만났을 때,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물론 서로간의 반목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작품은 통찰력을 지닌 영화인 동시에 정치와 개인 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감동적이게 전달한다.